



2023.08.07.

국회미래연구원 | 국가미래전략 Insight | 74호

1인 가구 유형 분석과 행복 제고를 위한 시사점



민보경(삶의질그룹장)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국회미래연구원 | 국가미래전략 Insight | 74호

ISSN 2733-8258

발행일 2023년 8월 7일

발행인 김현곤

발행처 국회미래연구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도서관 5층 국회미래연구원

Tel 02-786-2190 Fax 02-786-3977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단기 심층연구결과물로,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합니다.

1인 가구 유형 분석과 행복 제고를 위한 시사점

민보경(삶의질그룹장)



CONTENTS

1. 서론: 다양한 1인가구의 증가	05
2. 선행연구 검토	06
3. 연구 방법	09
4. 분석결과	10
5. 결론: 1인가구 맞춤형 행복 제고 전략	19

-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대응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다양한 요인에 따른 1인가구의 이질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채 1인가구를 하나의 집단으로 상정하여 대책을 검토하는 연구가 대부분

- 본 연구는 1인가구는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는가? 1인가구의 유형에 따라 삶의 만족도, 행복감에 차이가 나타날까? 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함
- 본 연구는 1인가구가 유형화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유형별 삶의 만족도와 행복수준을 비교하여 1인가구의 다양성에 기반한 정책적 필요성과 시사점 제시

- 1인가구를 유형화하기 위해 나이, 성별, 혼인상태, 소득 등을 활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7개 군집 도출하여 각 군집별 특징과 행복 비교

- 군집 1(노년 사별 여성)은 소득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건강 만족도와 공동체 소속감 만족도 낮게 나타남
- 군집 2(기러기형 중년)는 중년의 기혼과 별거의 여성과 남성으로 구성되었으며 소득은 다양한 분포를 보임
- 군집 3(중년 이혼 여성)은 공동체 소속감 만족도가 가장 낮으며, 생활수준 만족도, 안전감 만족도 낮은 편
- 군집 4(노년 사별 남성)는 전반적 행복감 낮은 편으로 건강 만족도 낮으며, 취약한 사회적 관계 특징
- 군집 5(미혼 젊은 남성)는 소득이 비교적 높은 편으로 대부분의 영역별 만족도와 전반적 행복감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
- 군집 6(미혼 젊은 여성)은 전반적 행복감이 가장 높은 1인가구 유형으로, 사회적 관계 양호한 편
- 군집 7(중년 이혼 남성)은 소득은 높은 수준이나 전반적 행복감이 가장 낮은 1인가구 유형으로, 대인관계 만족도, 안전감 만족도, 생활수준 만족도 등이 낮게 나타남

- 다차원적인 1인가구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전략 마련과 새로운 1인가구 시대에 맞는 제도 준비 필요

- 1인가구는 여럿이 같이 사는 사람들에 비해 행복과 만족도 수준이 낮으며 특히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이에 대한 대응 전략 필요
- 이혼, 사별로 인해 혼자 사는 중년, 노년 남성 그룹인 군집 4(노년 사별 남성)와 군집 7(중년 이혼 남성)은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함
- 1인가구 증가로 과거 가족이 수행했던 많은 기능이 지역사회와 국가의 역할로 대체될 필요가 있으며, 종합적인 시각에서 체계적 대응 필요

1. 서론: 다양한 1인가구의 증가

다양하고 이질적인 1인가구의 특성 이해 필요

- 1인가구의 증가 추세는 최근 수십년간 나타난 우리 사회의 주목할만한 변화이며 앞으로 더욱 심화될 현상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한 시점
 - 대한민국 전체가구 중 1인가구는 716만 6천여가구로 전체가구의 33.4%에 해당(통계청, 2022)
 -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970년 1인가구 비중은 전체 가구의 3.7%에 불과했으나 1980년 4.8%, 1990년 9.0%, 2000년 15.5%, 2010년 23.9%, 2020년 31.7%로 가파르게 증가
 - 이러한 증가세는 지속되어 2030년 35.6%, 2050년 39.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1인가구 증가 현상은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여성들의 의식 변화와 경제활동 증가, 젊은 세대의 결혼관 변화에 따른 비혼과 만혼의 증가, 이혼과 별거 등으로 인한 독신자 증가, 평균수명연장에 따른 배우자 사망 이후 독거 기간 증가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 작용
- 1인가구 대응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1인가구 내의 이질성은 반영하지 못한 채 동일 집단으로 상정하여 대책을 검토함으로써 적절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부족
 - 연령, 성별, 소득, 1인가구가 된 원인 등에 따라 다양하고 이질적인 1인가구의 특성에 맞춰 세분화된 정책 설계와 집행 필요

연구 질문: 1인가구는 특정 유형으로 구분되는가? 1인가구의 유형별 특성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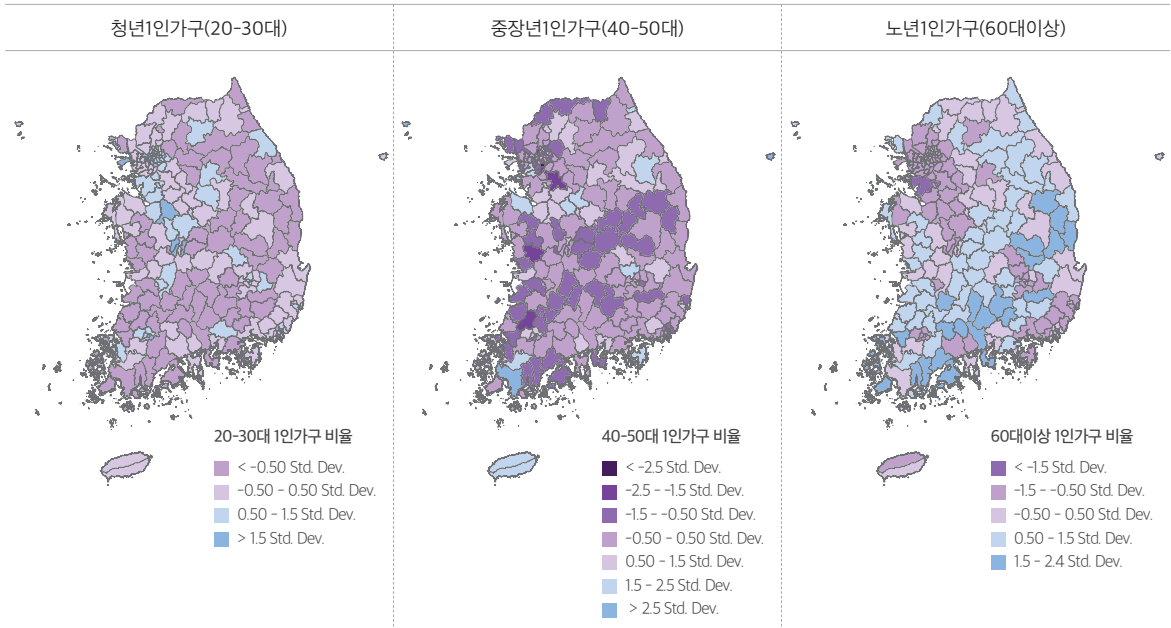
- 1인가구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는가? 1인가구의 유형에 따라 삶의 만족도, 행복감에 차이가 나타날까?
- 본 연구는 인구, 사회, 경제적 특성들에 의해 1인가구가 유형화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유형별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을 비교하여 다양한 1인가구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2. 선행연구 검토

1인가구 특성

- 혼자 사는 사람들의 사회적 고립, 연결망, 참여 등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 부각
 - 혼자 사는 사람들의 취약한 사회적 연결망으로 인한 높은 사회적 고립의 위험성과 낮은 안녕감(House et al., 1988; Hughes and Gove, 1981; Hughes and Waite, 2002)은 이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위협함과 동시에 부정적 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이 요구됨(송지선·경정아, 2021)
 - 반면, 오히려 사회경제적으로 더 유리한 남성과 자발적으로 혼자 사는 여성들이 여럿이 사는 사람들에 비해 사회적 참여 수준이 높다는 반론도 존재(Klinenberg, 2012)
- 1인가구는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특성상 불안정성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존재
 - 전반적으로 1인가구는 나홀로 생계를 꾸려가는 특성으로 인해 가구소득의 대부분이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구성되며, 은퇴, 실업, 고령 등의 생애주기에 따른 근로소득의 감소에 직면할 때 다른 가구원의 소득으로 보충될 수 없다는 불안과 불확실성 존재(김석호 외, 2018)
 - 여성 1인가구는 낮은 소득, 불안정한 고용, 주거안전, 건강과 우울 등에 직면하는 경향을 보이며(장임숙, 2020), 혼자 살고 있다는 것 자체로 범죄의 대상으로 여겨질까 두려워하는데, 특히 성범죄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을 가지기도 함(김석호 외, 2018)
- 1인가구는 사회경제적 특성, 계층적 위치에 따라 거주지가 상이하며, 이로 인해 1인가구의 거주지역은 공간적 이질성을 보이기도 함
 - 지역의 주거환경, 교통환경, 사회적 연결망 등이 지역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1인가구 공간적 분포의 특징이 나타남(변미리, 2015)
 - 농어촌 지역에서의 고령화로 인해 노인 1인가구의 비율이 높으며, 대학 등 교육시설, 일자리 등이 많은 수도권, 대도시 지역은 청년 1인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림 1> 세대별 1인가구 분포



* 주) 통계청(2021)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 활용하여 시·군·구의 전체가구 대비 연령별 1인가구 비율로 작성

1인가구 세분화

- 1인가구 증가는 연령별로 다양하며, 사회구조적 변화와 관련되어 있음(관계부처합동, 2020)
 - 청년층은 타 지역으로 진학, 취업을 통한 분거, 독립과 미혼, 만혼, 비혼주의 영향으로 크게 증가
 - 중장년은 비혼주의 확산, 이혼, 맞벌이, 자녀교육을 위한 기러기 부부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혼재
 - 노년층은 자녀의 독립 이후 배우자 사망으로 인해 1인가구화 되는 경우가 다수
- 1인가구는 결혼 지위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이질적이고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질성과 이질성을 모두 가지고 있음(김석호 외, 2018)
 - 대부분 1인가구내 집단간 비교는 주로 세대별 차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김미숙·김안나, 2020; 강은나·이민홍, 2016), 세대별 차이를 벗어난 다차원적 접근에 근거한 유형화 필요

- 1인가구는 가치관, 경제환경, 사회문화적 영향 등이 상이한 집단으로 계층적 위치, 형성 배경 등에서 일정한 차이 발생
 - 서울의 1인가구를 전문직 화이트컬러 중심의 30-40대, 직업을 모색하는 20대 산업예비군, 40-50대 불안한 독신자 그룹, 고령자 집단인 실버세대 등 4개 집단으로 유형화하여 구분(변미리, 2015)
 - 독거노인의 경우 사회적 관계 수준에 따라 안전자립 노인, 관심필요 노인, 위기 노인, 취약 노인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음(김현미, 2017)
 - 우리 사회 3가구 중 1가구가 1인가구로 대세가 되면서 중요한 소비주체로 인식하여 소비가치, 행태에 따라 1인가구를 세분화하는 연구 등이 활발(원종현·정재은, 2015; 차유정·최규완, 2021)
- 1인가구 형성은 연령대의 변화와 가족을 기준으로 한 생활단위 변화에 따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
 - 혼인상태는 1인가구의 변화를 살펴보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결혼을 하지 않거나 이혼, 사별, 그리고 배우자가 있더라도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 1인가구가 되며 최근 미혼으로 인한 1인가구 증가는 전 연령대에서 증가(박미선·이재춘 외, 2017)
 - 가족을 기준으로 한 1인가구 형성 원인은 연령대에 따라서 구분되는 경향이 있는데, 청년의 경우 가족관계가 미형성됨으로써 발생하고(비혼과 만혼), 혼자 사는 중장년층은 가족해체에 따라(이혼, 별거, 기러기 가족), 그리고 노년 1인가구는 가족구성원의 탈락(사별)으로 형성되는 경향

본 연구의 차별성

- 본 연구는 다양한 1인가구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1인가구를 유형화하고, 1인가구 내 집단별 행복 수준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1인가구 유형별 행복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 1인가구의 행복 연구는 대부분 1인가구의 행복 영향요인(김가원·황혜신, 2021),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비교(김미곤, 2015) 등에 관한 것으로 다양한 1인가구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1인가구 내 집단별 행복 수준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결과는 충분치 않음
 - 1인가구의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을 향상하는 데 있어 1인가구 내 인구학적, 경제사회적 특성에 따른 다양한 집단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전략 필요
 - 본 연구는 1인가구의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여 구분하고 집단 간 행복과 삶의 만족도 수준을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함

3. 연구 방법

표본 선정 및 자료 수집

- 본 연구는 국회미래연구원의 2022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 조사대상은 전국 거주 만15세 이상의 일반 국민이며, 표본들은 통계청 집계구를 활용함
 - 조사방법은 가구 방문하여 가구원 전원을 면접 조사하였고, 조사 완료된 전체 표본 수는 총 7,698가구의 17,045명이며 그 중 가구원이 1명인 가구를 대상으로 1인가구 표본 1,428명 선정하였으며 모집단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

자료분석 방법

-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는 본 연구의 설정된 과제를 검증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활용하여 유형화 실시
 - 군집의 여러 방법 중 특히 범주형(categorical) 및 연속형(continuous) 변수를 동시에 처리하여 다수의 케이스를 최적의 군집으로 자동 분류해 줄 수 있는 이단계 군집(two-step cluster)의 알고리즘 사용
 - 이단계 군집분석은 BIC(Schwarz's Bayesian Inference Criterion) 기준에 의해 군집 수가 결정되며, 가장 낮은 BIC값을 갖는 군집이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됨(김기현 외, 2017)
- 1인가구 유형화에 따른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삶의 만족도, 행복감 등 각 군집의 특성 비교

4. 분석결과

연구대상 1인가구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본 연구대상 표본(n=1,468)의 특성은 <표 1>과 같으며 혼인상태는 사별(34.4%), 미혼(40.7%), 이혼(18.6%), 기혼(5.3%), 별거(0.9%) 등으로 나타남
 - 조사 응답 1인가구의 성별 분포도는 남성(45.1%)에 비해 여성(54.9%)의 비중이 약간 높았으며, 연령은 60대 이상이 가장 많은 비중 차지
 - 지난 1년간 세금납부 전 월평균 소득은 200-300만원(29.6%), 300-400만원(21.2%), 100만원 미만(19.9%), 100-200만원(19.3%) 순으로 나타남

<표 1> 1인가구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구분	비율(%)
성별	여성	54.9
	남성	45.1
나이	15-19세	0.2
	20대	10.7
	30대	16.2
	40대	14.3
	50대	16.2
	60대 이상	42.5
학력	중졸이하	27.3
	고졸	33.2
	대졸이상	39.6
혼인상태	미혼	40.7
	기혼	5.3
	사별	34.4
	이혼	18.6
	별거	0.9

변수	구분	비율(%)
소득	100만원 미만	19.9
	100-200만원	19.3
	200-300만원	29.6
	300-400만원	21.2
	400만원 이상	10.1

군집분석

- 본 연구는 Schwarz's Bayesian Inference Criterion (BIC) 기준에 의해 자동으로 군집 수가 결정되는 이단계 군집 (two-step cluster)의 알고리즘 사용하여 7개 군집 도출
 - 선행연구 검토 결과, 1인가구의 유형을 분류하는 객관적 특성으로 나이(최현수 외, 2016; 김미숙·김안나, 2020; 박민진·김성아, 2022), 성별(장임숙, 2020), 혼인상태(박민진·김성아, 2022), 소득(채병주·황선재, 2021) 등의 인구사회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고찰
 - 본 연구는 인구사회적, 경제적 요인 등 객관적 변수를 중심으로 1인가구를 유형화하였으며, 연속형 변수(나이, 소득)와 범주형 변수(성별, 혼인상태)를 결합하여 7개의 최적 군집 추출
- 7개의 군집 특징은 다음과 같음(표 2 참고)
 - 군집 1(노년 사별 여성)의 경우, 나이는 가장 높은 집단으로 평균 72.6세이며, 사별한 여성이 100%로 구성되었으며, 소득은 가장 낮은 수준
 - 군집 2(기러기형 중년)는 나이는 높은 편으로 평균 57.8세이며, 혼인상태는 기혼(86.9%)과 별거(13.1%)인 여성 (59.8%)과 남성(40.2%)으로 구성되었으며, 소득은 약간 높은 편으로 다양한 분포 보임
 - 군집 3(중년 이혼 여성)은 이혼한 여성이 100%로 구성되었으며, 나이는 약간 높은 편으로 평균 56.9세이며, 소득은 1인가구 평균 수준
 - 군집 4(노년 사별 남성)는 고령의 사별한 남성(100%)이며 평균연령은 68.3세이고, 소득은 낮은 수준
 - 군집 5(미혼 젊은 남성)는 결혼하지 않은 남성(100%)으로 구성되었으며, 평균 37.7세이고 소득은 높은 수준
 - 군집 6(미혼 젊은 여성)은 결혼하지 않은 여성(100%)으로 구성되었으며 평균 38.1세이며 소득수준은 약간 높은 편
 - 군집 7(중년 이혼 남성)은 이혼한 남성으로 나이는 약간 높은 편으로 평균 56.0세이며, 소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 이단계(Two-Step) 군집분석 결과

변수	군집1 n=441 (30.9%)	군집2 n=107 (7.5%)	군집3 n=127 (8.9%)	군집4 n=111 (7.8%)	군집5 n=322 (22.5%)	군집6 n=203 (14.2%)	군집7 n=117 (8.2%)
나이(z)	0.96	0.12	0.04	0.79	-1.02	-1.00	0.04
혼인상태	사별 100%	기혼 86.9% 별거 13.1%	이혼 100%	사별 100%	미혼 100%	미혼 100%	이혼100%
성별	여성 100%	여성 59.8%	여성 100%	남성 100%	남성 100%	여성 100%	남성100%
소득(z)	-0.59	0.11	0.01	-0.30	0.50	0.30	0.50

* 군집품질- 평균실루엣= 0.60

○ 1인가구 증가에 따라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고독사, 은둔형 외톨이, 우울 등은 사회적 고립과 관련되어 나타나므로(박민진·김성아, 2022; 안현찬 외, 2022), 본 연구는 1인가구의 군집별 사회적 고립 특성을 검토하기 위해 교차분석 실시(표 3 참고)

- 사회적 고립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인의 행복조사 문항 중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한 경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변수로 투입
- 분석결과 7개 군집은 세 가지 항목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관계에 있어 특징을 나타내는 군집은 다음과 같음
- 군집 6(미혼 젊은 여성)은 갑자기 큰 돈 빌릴 사람 없음(9.0%), 아플 때 도움 줄 사람 없음(3.7%), 우울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이야기할 사람 없음(1.6%) 등 각 항목의 비중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나 사회적 관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며, 군집 5(미혼 젊은 남성) 역시 사회적 관계가 양호함
- 군집 7(중년 이혼 남성)은 갑자기 큰 돈 빌릴 사람 없음(22.9%), 아플 때 도움 줄 사람 없음(21.1%), 우울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이야기할 사람 없음(10.8%) 등 각 항목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편으로 사회적 고립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임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아플 때 도움 줄 사람이 없는 경우가 다른 군집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남
- 군집 4(노년 사별 남성) 역시 갑자기 큰 돈 빌릴 사람 없음(20.7%), 아플 때 도움 줄 사람 없음(11.3%), 우울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이야기할 사람 없음(14.9%) 등 각 항목의 비중이 높은 편으로, 특히 우울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경우가 다른 군집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나 정서적 건강과 관련된 취약성 나타냄

<표 3> 군집별 사회적 고립 특성

(단위: %)

		군집1 n=441	군집2 n=107	군집3 n=127	군집4 n=111	군집5 n=322	군집6 n=203	군집7 n=117	Pearson X ²
갑자기 큰돈 빌릴 사람	있음	81.1	88.2	80.9	79.3	89.4	91.0	77.1	68048.2***
	없음	18.9	11.8	19.1	20.7	10.6	9.0	22.9	
아플 때 도움줄 사람	있음	95.3	95.7	87.6	88.7	93.2	96.3	78.9	128371.7***
	없음	4.7	4.3	12.4	11.3	6.8	3.7	21.1	
우울할 때 이야기할 사람	있음	91.0	95.1	97.9	85.1	97.5	98.4	89.2	659.265***
	없음	9.0	4.9	2.1	14.9	2.5	1.6	10.8	

***p<.001

* 주) (군집1)노년사별여성, (군집2)기러기형중년층, (군집3)중년이혼여성, (군집4)노년사별남성, (군집5)젊은이혼남성, (군집6)젊은이혼여성, (군집7)중년이혼남성

1인가구 군집별 행복 비교

- 1인가구 군집별 행복과 삶의 만족도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분산분석 실시(표 4 참고)
 - 전반적으로 1인가구의 행복감과 만족도는 2022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응답자 전체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나, 건강 만족도의 경우 군집 5(젊은 미혼 남성, 6.74점)와 군집 6(젊은 미혼 여성, 6.62점)이 전체 평균(6.41점)보다 높은 수준 나타냄
 - 1인가구 군집별 행복과 만족도 수준을 비교해 보면, 전반적 행복감은 군집 6(젊은 미혼 여성)이 가장 높으며(6.43점), 군집 7(중년 이혼 남성)이 가장 낮은 수준(5.43점)
 - 생활수준 만족도는 군집 3(중년 이혼 여성)과 군집 7(중년 이혼 남성)이 가장 낮으며(각각 5.28점), 군집 5(젊은 미혼 남성)가 가장 높게 나타남(5.92점)
 - 건강 만족도는 군집 1(노년 사별 여성)이 가장 낮으며(5.18점), 군집 4(노년 사별 남성)도 낮은 편(5.28점)
 - 대인관계 만족도는 군집 7(중년 이혼 남성)이 가장 낮으며(5.71점), 군집 5(젊은 미혼남성)가 가장 높은 수준(6.30점)
 - 안전감 만족도는 군집 7(중년 이혼 남성)이 가장 낮으며(5.33점), 군집 6(젊은 미혼 여성)이 가장 높음(6.04점)
 - 공동체 소속감은 군집 3(중년 이혼 여성)이 가장 낮으며(5.23점), 군집 1(노년 사별 여성)도 낮은 편(5.25점)이며, 군집 5(젊은 미혼 남성)가 가장 높게 나타남(6.01점)

<표 4> 1인가구 군집별 행복과 만족도 비교 분석

종속변수	세대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
전반적 행복감 (전체평균 ^{주)} 6.46)	노년사별여성(a)	6.17	1.676	25279.01***	g<d<c<b<a<e<f
	기러기형중년층(b)	6.15	1.491		
	중년이혼여성(c)	5.93	1.397		
	노년사별남성(d)	5.57	1.563		
	젊은미혼남성(e)	6.36	1.427		
	젊은미혼여성(f)	6.43	1.395		
	중년이혼남성(g)	5.43	1.731		
생활수준 만족 (전체평균 6.00)	노년사별여성(a)	5.36	1.773	116913.41***	c,g<b<a<d<f<e
	기러기형중년층(b)	5.34	1.749		
	중년이혼여성(c)	5.28	1.670		
	노년사별남성(d)	5.47	1.608		
	젊은미혼남성(e)	5.92	1.532		
	젊은미혼여성(f)	5.89	1.464		
	중년이혼남성(g)	5.28	1.808		
건강 만족 (전체평균 6.41)	노년사별여성(a)	5.18	1.956	75881.92***	a<d,b<g<c<f<e
	기러기형중년층(b)	5.71	1.978		
	중년이혼여성(c)	5.93	1.701		
	노년사별남성(d)	5.28	1.947		
	젊은미혼남성(e)	6.74	1.693		
	젊은미혼여성(f)	6.62	1.699		
	중년이혼남성(g)	5.92	2.057		
대인관계 만족 (전체평균 6.34)	노년사별여성(a)	6.04	1.600	7796.45***	g<c<b<d,a<f<e
	기러기형중년층(b)	6.01	1.654		
	중년이혼여성(c)	5.84	1.570		
	노년사별남성(d)	6.04	1.648		
	젊은미혼남성(e)	6.30	1.509		
	젊은미혼여성(f)	6.22	1.425		
	중년이혼남성(g)	5.71	1.878		

종속변수	세대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
안전감 만족 (전체평균 6.13)	노년사별여성(a)	5.76	1.629	12159.76***	g<c<d,a<b<e<f
	기러기형중년층(b)	5.94	1.613		
	중년이혼여성(c)	5.47	1.515		
	노년사별남성(d)	5.76	1.533		
	젊은미혼남성(e)	6.00	1.587		
	젊은미혼여성(f)	6.04	1.408		
	중년이혼남성(g)	5.33	1.646		
공동체 소속감 만족 (전체평균 5.87)	노년사별여성(a)	5.25	1.815	19834.29***	c<a<d<g<b<f<e
	기러기형중년층(b)	5.64	1.833		
	중년이혼여성(c)	5.23	1.802		
	노년사별남성(d)	5.39	1.824		
	젊은미혼남성(e)	6.01	1.629		
	젊은미혼여성(f)	5.83	1.636		
	중년이혼남성(g)	5.42	1.828		

***p<.001
 * 주) 각 변수의 전체 평균은 2022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응답자 전체(17,045)의 평균값

- 1인가구 군집별 만족도와 행복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그림 2), 군집 7(중년 이혼 남성)이 전반적으로 취약함을 알 수 있음
 - 만족도와 행복감에 있어 전체 평균과 비교해 보면, 군집 1(노년 사별 여성)은 건강과 공동체 소속감의 영역에서, 군집 3(중년 이혼 여성)은 생활수준, 안전감, 공동체 소속감의 영역에서, 군집 4(노년 사별 남성)는 건강, 전반적 행복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냄

<그림 2> 1인가구 군집별 행복과 만족도 수준 비교



- 위와 같은 1인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군집별 사회적 고립감, 행복감 등의 결과를 종합하여 생애주기, 성별, 혼인상태를 고려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표 5>와 같음
 - 젊은 미혼 여성 집단(군집 6)은 평균 38.1세, 1인가구 평균 소득보다 높은 편, 사회적 관계 양호하며, 전반적 행복감이 가장 높은 집단이며, 만족도 높은 편
 - 젊은 미혼 남성 집단(군집 5)은 평균 37.7세, 소득 매우 높은 편, 전반적으로 영역별 만족도, 행복감 높은 편
 - 중년 이혼 여성 집단(군집 3)은 평균 56.9세, 평균 소득 수준, 생활수준 만족도, 안전감 만족도, 공동체 소속감 만족도 낮은 편
 - 중년 이혼 남성 집단(군집 7)은 평균 56.0세, 소득은 매우 높은 수준, 아플 때 도움을 줄 사람 없음(21.1%), 전반적 행복감, 생활수준 만족도, 대인관계 만족도, 안전감 만족도 가장 낮은 집단
 - 노년 사별 여성 집단(군집 1)은 평균 72.6세, 소득 매우 낮은 편, 건강 만족도 가장 낮으며, 공동체 소속감 낮은 편
 - 노년 사별 남성 집단(군집 4)은 평균 68.3세, 소득은 낮은 편, 우울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이야기할 사람 없음(14.9%), 전반적 행복감, 건강 만족도 낮음
 - 기러기형 중년층 집단(군집 2)은 평균 57.8세, 기혼(86.9%), 여성(60%), 소득분포 다양하다는 특징을 보임

<표 5> 1인가구 군집별 특성 종합 정리

	[군집6] 젊은 미혼 여성	[군집5] 젊은 미혼 남성	[군집3] 중년 이혼 여성	[군집7] 중년 이혼 남성	[군집1] 노년 사별 여성	[군집4] 노년 사별 남성	[군집2] 기러기형 중년층
--	----------------------	----------------------	----------------------	----------------------	----------------------	----------------------	----------------------

사회경제적 지위

평균연령	38.1세	37.7세	56.9세	56.0세	72.6세	68.3세	57.8세
성별	여성 100%	남성 100%	여성 100%	남성 100%	여성 100%	남성 100%	여성 59.8%
혼인상태	미혼 100%	미혼 100%	이혼 100%	이혼 100%	사별 100%	사별 100%	기혼 86.9% /별거 13.1%
소득 (1인가구 평균대비)	높은 편	매우 높은 편	평균 수준	매우 높은 편	매우 낮은 편	낮은 편	약간 높은 편

사회적 고립 (~할 때 도움 줄 사람 없음, %)

갑자기 큰돈 필요할 때	9.0	10.6	19.1	22.9	18.9	20.7	11.8
아플 때	3.7	6.8	12.4	21.1	4.7	11.3	4.3
우울할 때	1.6	2.5	2.1	10.8	9.0	14.9	4.9

행복감

전반적 행복감 (전체평균* 6.46)	6.43	6.36	5.93	5.43	6.17	5.57	6.15
생활수준 만족 (전체평균 6.00)	5.89	5.92	5.28	5.28	5.36	5.47	5.34
건강 만족 (전체평균 6.41)	6.62	6.74	5.93	5.92	5.18	5.28	5.71
대인관계 만족 (전체평균 6.34)	6.22	6.30	5.84	5.71	6.04	6.04	6.01
안전감 만족 (전체평균 6.13)	6.04	6.00	5.47	5.33	5.76	5.76	5.94
공동체 소속감 만족 (전체평균 5.87)	5.83	6.01	5.23	5.42	5.25	5.39	5.64

* 전체 평균은 2022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응답자 전체(N=17,045)의 평균값

* 주)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음영으로 표시함

5. 결론: 1인가구 맞춤형 행복 제고 전략

혼자 사는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행복감이 낮으며, 유형별 대응 전략 바람직

- 혼자 사는 사람들은 여럿이 같이 사는 사람들보다 전반적 행복감, 영역별 만족도가 낮으며, 특히 생활수준의 만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전략 마련 필요
 - 2022년 행복조사 응답자의 전반적 행복감 평균 6.46점과 비교해 볼 때, 1인가구의 7개 유형 모두 이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군집 7(중년 이혼 남성)의 행복 수준이 5.43점으로 가장 낮음
 - 1인가구는 소득과 자산 수준이 전체 평균의 36% 수준에 불과(관계부처합동, 2020)하므로 취약 1인가구의 기본생활 보장 강화, 소득 지원 외 건강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 지원 등 사회안전망 확충 시급
 - 군집 5(젊은 미혼 남성)와 군집 6(젊은 미혼 여성)은 생활 수준 만족의 경우 1인가구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전체 평균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아 사회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이 필요한 청년세대임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 필요
 - 건강 만족도 역시 젊은 1인가구인 군집 5(젊은 미혼 남성)와 군집 6(젊은 미혼 여성)은 전체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으나 연령층이 높은 군집 1(노년 사별 여성), 군집 4(노년 사별 남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
 - 본 연구는 2022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로 향후 1인가구 대표성을 가지는 추가 자료 분석, 1인가구 대상 심층 인터뷰 등 후속 연구 진행 필요

혼자 사는 중년, 노년 남성의 사회적 관계 개선 전략 마련

- 대부분 복지 정책 대상이 청년, 노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인가구 정책 역시 청년층, 노인층에 집중적 이므로 사각지대에 있는 중년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책 필요
 - 이혼, 별거 등 가족해체로 인해 형성된 중년의 불안한 독신자 그룹은 혼자 사는 기간이 길수록 직업과 소득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었다는 불안감이 가중되는 경향 나타냄(변미리, 2015)
 - 이혼한 중년 여성과 남성의 생활수준 만족도, 대인관계 만족도, 안전감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사회적 관계망 형성 강화를 위한 사업 활성화, 공동체와의 연계 추진 필요
 - 군집 7(중년 이혼 남성)은 다른 1인가구 집단에 비해 소득이 높았으나 행복감,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이혼, 별거, 사별로 인해 혼자 사는 중년, 노년의 남성들 그룹인 군집 4(노년 사별 남성)과 군집 7(중년 이혼 남성)은 전반적 행복감이 낮은 수준으로, 특히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취약성이 확인되었으며 사회적 고립에 대한 예방책이 마련되어야 함
 - 중년, 노년의 남성 1인가구는 건강, 돌봄, 식생활 등에 있어 스스로 해결하는데 있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 마련책 필요

초고령화 시대, 증가하는 고령 1인가구의 생활수준과 건강 만족도 제고 전략 필요

- 고령 1인가구는 스스로 원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배우자 사망 이후 독거기간이 증가하여 혼자 사는 사람들이며 경제적 자립도 낮으며, 주요 이슈는 빈곤, 건강 문제
 - 군집 1(노년 사별 여성)과 군집 4(노년 사별 남성)는 소득이 낮으며, 다른 영역에 비해 특히 건강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음
 - 우리나라의 노인자살률과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최고 수준이고, 향후 기대수명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장기화되는 노년기를 고려해 보면 소득보장 등 경제적 지원, 안전성 확보, 사회적 관심, 건강 돌봄 등 종합적 정책 지원을 통해 객관적 상태와 주관적 만족감을 향상시키려는 노력 필요

기존 가족 제도를 보완하는 지역사회와 국가의 역할 재정립

- 새로운 1인가구 시대에 맞는 제도 준비 필요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2070)」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비를 의미하는 노년부양비는 '90년 7.4, '00년 10.1, 2010년 14.8, 2020년 21.8로 그 증가속도는 이미 빨라지기 시작했으며, 향후 2030년 38.6, 2040년 60.5, 2050년 78.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사회적 대책 마련 필요
- 과거 가족이 수행했던 많은 기능이 지역사회와 국가의 역할로 대체될 필요가 있으며, 종합점검하여 체계적 대응 필요
 - 전체가구 중 1인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아졌으나 다인가구 중심의 정책 골격 지속
 - 가계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 삶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법과 세제 등 각종 제도는 여전히 가족 중심적인 것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필요
 - 지역 단위 커뮤니티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단위 공동체가 가족의 공백을 메우지 못한 결과 우울, 돌봄 부재, 노인 빈곤, 고독사 등 사회문제 발생
 - 한 사람의 일생에서 돌봄과 보살핌은 필수적 삶의 조건으로 1인가구의 증가는 전통가족에게 기대되었던 가족 간 돌봄이 비친족 친밀한 관계의 가족 인정을 위한 법, 제도 개편 등의 방식이 필요함을 시사함(허민숙, 2022)
 - 혼자 사는 사람들의 심리적 안정, 정서적 만족감, 행복감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와 국가의 적극적 노력 필요

참고문헌

- 강은나·이민홍(2016) 우리나라 세대별 1인가구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34권, 47-56.
- 관계부처합동(2020)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I) 관계부처합동
- 김가원·황혜신(2021) 노인 1인가구의 연령대별 행복감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76(1), 45-70.
- 김기현·윤유식·조용진(2017) 2단계 군집분석을 통한 농촌체험 관광객 시장세분화 및 특성분석, 관광레저연구 29(10), 5-20.
- 김미곤(2015) 한국인의 가구유형별 개인특성별 주관적 행복수준, 보건·복지 Issues&Focus 274, 1-8.
- 김미숙·김안나(2020) 1인가구의 세대별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비교 연구,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지 21(1), 15-31.
- 김석호 외(2018) 인구특성별 1인가구 현황 및 정책대응 연구, 여성가족부.
- 김현미(2017) 독거노인 사회적관계 활성화 방안: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 중심으로, 한국노년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집.
- 박미선·이재춘 외(2017)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정책 대응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박민진·김성아(2022) 1인가구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및 정신건강 문제의 특성과 유형: 서울시 1인가구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42(4), 127-141.
- 변미리(2015) 도시에서 혼자 사는 것의 의미: 1인가구 현황 및 도시정책 수요,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3), 551-573.
- 송지선·경정아(2021) 중장년 남성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방안, 이슈페이퍼, 서울시50플러스재단.
- 안현찬 외(2022)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용역 보고서, 서울특별시.
- 원종현·정재은(2015) 소비가치에 따른 1인 가구 세분화와 구매행동: Sheth의 소비가치이론을 중심으로, 소비자학 연구 26(1), 73-99.
- 장임숙(2020) 1인가구의 젠더 특성과 정책방안, 지방정부연구 24(1), 373-397.
- 차유정·최규완(2021) 잠재계층분석을 이용한 1인가구 시장세분화에 관한 연구, 기업경영리뷰 12(1), 109-129.
- 채병주·황선재(2021) 청년 1인가구의 사회경제적 이질성과 복지 영역 선호, 보건사회연구원 41(3), 248-268.
- 최현수 외(2016) 1인 취약가구 위험분석 및 맞춤형 정책지원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통계청(2022) 2022 통계로 보는 1인가구, 통계청.
-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2020~2070), 보도자료, 통계청

- 허민숙(2022) 가족 다양성의 현실과 정책 과제: 비친족 친밀한 관계의 가족 인정 필요성, NARS 현안분석 제251호, 국회입법조사처.
- House, J.S., Landis, K.R., and Umberson, D. (1988). *Social relationships and health*. *Science* 241: 540-545.
- Hughes, M.E. and Gove, W.R. (1981). Living alone, social integration, and mental health.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7: 48-74.
- Hughes, M.E. and Waite, L.J. (2002). Health in household context: Living arrangements and health in late middle ag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3: 1-21.
- Klinenberg, E. (2012). *Going solo: The extraordinary rise and surprising appeal of living alone*. New York: Penguin Books.

국가미래전략 Insight 발간현황

발행일	제목	작성자	vol
2023.08.07.	1인 가구 유형 분석과 행복 제고를 위한 시사점	민보경	74
2023.07.31.	민주화 이후 한국의 노동정치 - 한·미·일 비교 분석	정혜윤	73
2023.07.24.	공공정책은 누가 결정하는가? - 갈등적인 정책의제에 대한 대통령과 국회의 상호작용 분석	박현석	72
2023.06.26.	국제질서의 변화와 공급망 전략	박성준	71
2023.06.05.	평화구축에 대한 서울지역 여성의 미래대화	김태경	70
2023.05.22.	좋은 사회로의 대전환 - 쉼림사회에서 개성사회로 -	김현곤	69
2023.05.15.	2050년, 우리는 어떤 국제질서를 원하는가?: 세계질서 대전환의 7대 트렌드와 세계의 선호미래	차정미	68
2023.05.01.	만들어진 당원: 우리는 어떻게 1천만 당원을 가진 나라가 되었나	박상훈·정순영·김승미	67
2023.04.17.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소득과 고용 분야 정책지표: 현황과 과제	이선화	66
2023.04.10.	플라스틱 순환경제 시나리오와 미래전략	김은아	65
2023.03.20.	한국 청년은 언제 집을 떠나는가: OECD 국가 비교	이상직	64
2023.03.06.	우리나라 혁신체제의 새로운 전환점: 학습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 전략과제	여영준	63
2023.02.27.	노동 안전 분야의 마그나카르타, 로벤스 보고서 누가, 왜, 어떻게 만들고 실현할 수 있었나	박상훈	62
2023.01.09.	2050년 대한민국 미래전망과 대응 전략	국회미래연구원	61
2023.01.02.	'양극화' 문제에 대한 국회의 대응	박현석	60
2022.12.12.	인재의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 개선 방향: 학습지원 방향 및 진단지표 개발	성문주	59
2022.11.28.	청년은 어느 지역에 살고, 어디로 이동하는가?	민보경	58
2022.11.14.	탈석탄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서의 시사점: 노동자 및 지역주민 대상	정 훈	57
2022.10.3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정책과 회복탄력적 혁신전략	여영준	56
2022.10.24.	일본의 정년정책: 한국과 비교의 관점에서	정혜윤	55
2022.10.17.	대통령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박상훈	54
2022.09.19.	이머징 이슈 탐색 플랫폼의 이해와 활용	김유빈	53
2022.09.05.	미래 인구구조 변화와 노후소득보장제도	유희수·우해봉	52
2022.08.22.	국내 탈석탄 과정의 주요 갈등 이슈와 이해관계자 분석	정 훈	51
2022.08.08.	한국인의 분배 인식: '능력주의' 논의에 대한 시사점	이상직	50
2022.07.25.	한국 복지체제의 대안적 전략 구상	이선화	49

발행일	제목	작성자	vol
2022.07.11.	1인 가구의 행복 분석	민보경	48
2022.06.13.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 분석 : 소득 수준과 빈곤 경험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이채정	47
2022.05.30.	노동시장 취약계층 사회적 이동성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정책 제언	성문주	46
2022.05.16.	미래 전망의 프레임과 개선안	박성원	45
2022.05.02.	‘국가’와 ‘국민’을 줄여 써야 할 국회	박상훈·문지혜·황희정	44
2022.04.18.	기후변화 5대 영향 영역과 적응입법 아젠다	김은아	43
2022.04.04.	디지털전환 시나리오별 한국 경제사회의 중장기 변화 전망과 시사점	여영준	42
2022.03.21.	코로나19 이후 미국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시사점	이선화	41
2022.03.07.	타협의 정치와 갈등 관리 : 한국 법인세율 결정과정 분석	박현석	40
2022.02.21.	대한민국의 미래와 교육 : 교육아젠다 10선	김현곤	39
2022.02.07.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주요 결과	허중호	38
2022.01.24.	장애인 운동 20년, 장애 입법 20년 : ‘이동권’에서 ‘탈시설’로	이상직	37
2022.01.10.	미래비전 2037 -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 -	김유빈	36
2021.12.30.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대응 산업지원 정책과제와 정책효과 분석	정 훈·여영준	35
2021.12.23.	인구충격에 대응하는 지역의 미래 전략 : 완화와 적응	민보경	34
2021.12.16.	저출생·고령사회 심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검토 : 아동 및 노인 대상 주요 사회서비스 시설의 분포 분석을 중심으로	이채정	33
2021.12.09.	청년층의 기업가정신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 방향 탐색	성문주	32
2021.11.18.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사업 분담체계 개편 전략	이선화	31
2021.11.04.	에너지수요관리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	조해인	30
2021.10.21.	디지털화폐의 등장과 금융시스템의 변화 전망	박성준	29
2021.10.07.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바라보는 미래 정책과 국회	박현석	28
2021.09.16.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도입에 따른 국내 산업계 영향과 대응방안	여영준·조해인·정 훈	27
2021.09.03.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전직지원서비스 정책 주요 이슈와 제언	성문주	26
2021.08.19.	어디 사는지에 따라 행복감이 달라질까? 도시와 비도시 지역의 행복요인	민보경	25
2021.08.05.	재난을 넘어, 혁신을 넘어 : 미래를 위한 혁신 정책의 대전환	전 준	24
2021.07.22.	대량 문헌탐색 기반 이머징 이슈 도출 :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분석 사례	김유빈	23

발행일	제목	작성자	vol
2021.07.08.	높은 자살률,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자살률	박상훈	22
2021.06.24.	선호미래로 향하는 우회도로	박성원	21
2021.06.10.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의 제안	김현곤	20
2021.05.27.	인구감소시대의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탐색	이채정	19
2021.05.13.	일하는 국회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조건	조인영	18
2021.04.29.	행복조사의 필요성과 한국인의 행복 실태	허종호	17
2021.04.15.	국가장기발전전략 탐색에 따른 개혁의제 제언	이선화	16
2021.04.01.	미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의 도전과제와 혁신방안: 과학기술 부문을 중심으로	여영준	15
2021.03.18.	국내외 에너지전환정책 현황 및 시사점	정 훈	14
2021.03.04.	동북아 지역의 국제 갈등 양상과 무역분쟁: GDELT를 중심으로	박성준	13
2021.02.18.	코로나19와 함께 한 1년: 국민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가?	허종호	12
2021.01.21.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진단 및 교육정책 과제	성문주	11
2021.01.07.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	민보경	10
2020.12.24.	세계적 감염병 이후 사회 변화	박성원·김유빈	9
2020.12.10.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한국 경제사회 파급효과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여영준	8
2020.11.26.	기후변화 영향 대응현황 및 제언(국내 연구·정책에 대한 양적 비교를 중심으로)	김은아	7
2020.11.19.	보존분배사회 전환을 위한 국민의 선택	박성원·정영훈	6
2020.11.12.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	김현곤	5
2020.10.15.	더 많은 입법이 우리 국회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박상훈	4
2020.09.17.	2050 대한민국 미래와 정책의제	김홍범	3
2020.09.03.	2050년 서른살, 민서가 바라는 미래	박성원	2
2020.08.20.	2050년 대한민국 미래예측과 국회가 주목한 11대 국가 개혁과제	김유빈	1

• 이 자료는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www.nafi.re.kr) 및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